



전남농업기술원은 질높은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첨단미래기술을 보급·지도하고, 가공상품 개발을 통해 전남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진은 우리나라 농업의 과거·현재·미래를 담은 농기원 전경.

# ‘농도 전남’ 핵심기관...지역 농축산물 부가가치 높인다

### 생산비 절감·친환경 농업·최신 농업 정보 전달 등 역할 수행 벼 품종 ‘새청무’ 개발...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일 집중 육성

‘농도 전남’의 핵심기관인 전남농업기술원(이하 농기원)은 질높은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첨단 미래기술을 보급·지도하고, 가공상품 개발을 통해 전남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계화 물결 속에 국내에서는 해외 및 타 지역 농축산물을 압도하고, 해외에 수출할 지역 농축산물 및 가공상품을 양산하는 것이 설립 취지다. 최근에는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첨단화·자동화에 나서 스마트팜을 육성하는 미래첨단기술과의 접목에도 힘쓰고 있다. 농기원은 지난 1909년 2월 설립된 전남도광주중요농업연구기관을 그 모태로 하고 있다. 전남도농사원, 전남도농촌진흥청 등의 명칭 변경을 거쳐 1992년 현재의 현 정사로 신축 이전했다. 113년의 역

사를 가진 농기원은 농업 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농기원은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기술,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기술, 최신 농업 정보 등을 신속하게 농가에 전달하면서 ‘농업 정보 거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농기원은 최근 밥맛 좋고 재해에 강한 벼 품종 ‘새청무’를 개발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 아열대 과수를 집중 육성해 전남을 아열대 과일 최대 생산지로 키워냈다. 여기에 기능성 상추 ‘흑하랑’을 이용해 숙면 보조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전남도 지역 특산물로 ‘아미 콤부차’를 개발해 시장에 내놓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밥맛 좋고 재해에 강한 벼, ‘새청무’=‘새청무’ 벼는 지난 2009년 새누리과 청무를 교배한 품종이다. 2014년부터 지역적응시험과 2016년 농가실증시험을 거쳐 2018년 품종 보호를 등록했다. 소비자가 원하는 밥맛, RPC(미곡처리장)의 도정 특성 우수, 농민이 바라는 재배 안정성 등을 만족시키는 ‘새청무’는 지난 2020년 3000ha에서 1년만에 2021년 6만8000ha로 급증해 전남 벼 재배 면적의 약 44%를 차지했다. ◇아열대 과일은 이제 전남에서=농기원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 및 열대과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아열대과수 신품종 개발 및 확산 연구 9개 과제(예산 2억원), 유자 지역특화품목 육성 및 산업화 연구 4개 과제(5.5억원), 신종 아열대과수 맞춤형 기술개발 4개 과제(1.8억원), 스프라프 생산기술 및 상품성 증진기술 개발 3개 과제(1억원) 등 아열대 및 열대과수 관련 모두 20

개 과제에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전남의 대표적인 지역특화작목인 유자와 관련 씨가 적고 가시가 없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기상 재해에 대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열대과일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바나나, 파인애플, 올리브, 애플망고, 패션프루트 등 작목의 시설재배 연구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기능성 상추로 숙면보조제품 ‘흑하랑’ 개발해 수출=흑하랑 상추는 농기원이 자체 개발한 품종으로 숙면과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락투신’ 성분이 일반 상추(1g당 0.03mg)와 비교해 124배 더 함유(1g당 3.74mg)돼 있다. 이에 따라 불면증 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농산물로 기대를 모으면서, 관련 기업 주도로 분말과 추출 액상을 활용한 가공 제품이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녹차, 홍차, 유자, 비트로 만든 ‘아미 콤부

차’ 개발=보성 녹차·홍차, 고흥 유자, 해남 비트가 주재료로 사용되는 RTD(Ready-To-Drink) 콤부차를 연구개발해 상품화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우영, 생강 등 전남의 농산물이 음료에 포함돼 있다. 콤부차(Kombucha)는 차를 우린 물에 스코비(SCOBY)균을 접종해 발효한 음료다. 다이어트, 간 기능 개선 등의 효능이 있어 탄산음료 대신 마시는 건강한 음료로 인식되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에서는 홍차·비트콤부차 발효에 관한 특허기술과 녹차·유자콤부차 향미숙성 기술을 개발했으며, 장흥 소재 ㈜씨플러스에 기술을 이전해 지난 8월 ‘아미(ATTA) 콤부차’ 브랜드로 출시했다. 아미(ATTA)는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Any Time To Anywhere)는 뜻과 함께 전남 방언인 ‘아-따’가 차용된 단어다. /윤현석 기자 chad@kwangju.co.kr



농기원이 지난 1일 자체 연구개발로 탄생한 약선보양 ‘호울죽’을 농식품 수출 전문업체인 ㈜카인드를 통해 홍콩에 수출했다. 지난 2018년부터 도내 이유식 전문업체인 ㈜청담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2년의 연구 끝에 지난해 출시한 ‘호울죽’ 8종을 앞으로 홍콩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도 수출할 계획이다.

## “지속가능한 농업 거점...민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 될 것”

### 박홍재 전남농기원장 인터뷰



지난 2020년 1월 취임한 제18대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2년여 간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개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팜 보급,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밀한 생산 정보 제공, 신품종 육성 및 기존 품종 고도화 등에 주력했다. 지역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관련 상품을 양산해 해외 수출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도 보였다. 농업인 교육, 기술 보급, 특화 작목 육성 등에 그쳤던 농기원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확장하면서 성과를 낸 것이다. 그는 보성 출신으로, 지난 1996년 경기도 이천 시농업기술센터에서 공직을 시작해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식량산업기술팀장 등 농업현장과 농촌진흥청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공직에서 전문성을 쌓고, 해박한 이론, 현장에 대한 이해, 적극적인 자세 등이 더해지면서 한 차원 높은 농기원으로 혁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남농업기술원의 주요 역할 사업이 있다면. ▲4차 산업혁명, 바이오 등 기술 융복합이 농산업의 미래 핵심 열쇠다. 또 디지털농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보급도 필요하다. 주요 역할 추진 사업 가

신선&가공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유학생 연계 전남 농식품 온라인 수출 판매대회, 농식품 수출확대 종합기술지원 TF 운영 등 해외시장 개척 관련 10개 사업에 9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2021년 11월 청년 창업타운을 개관했다. ▲청년 농부들의 안정적인 창업과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청년창업타운은 김영록 전남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모두 118억원이 투입돼 교육·가공장비·멘토링·기업입주공간·비즈니스센터·제품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제품지원센터에는 농식품 제품연구개발 장비 130여 종과 창업제품 연구개발을 위한 전자리질, 성형실, 건-습식 포장실 등이 구축돼 있다. 청년창업타운 가입 회원 중 제품지원센터의 기초교육 1개 과정 이상 이수자는 별도의 비용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한 시제품 생산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가공품을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전남 농업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으로,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의 거점으로, 농업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 농기원은 항상 농업인의 곁에 있을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전남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윤현석 기자 chad@kwangju.co.kr

##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의료기관 폐기물 수집·운반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지(연속)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드 고온스티밍 살균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업 TEL. (061)392.7900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전문업체 TEL. (061)393.3555  
(주)나이스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